

kiri Weekly

2015.11.16 제359호

포커스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이슈

최근 FTA 동향과 신흥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본과 중국 보험회사 자산운용 동향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반려동물보험 현황과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는 반려동물 관리체계의 선진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으로 향후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손해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한편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여 단순히 질병·상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1~2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2인 가구 비중은 52.7%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35년 1~2인 가구 비중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2인 가구 중 65세 노인가구의 비중은 29.4%에 달하며, 2035년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은 1,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며,¹⁾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반려동물을 기르는 1~2인 가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러나 2014년 현재 반려동물의 보험가입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³⁾ 알려져 있어 반려동물을

1) 농협경제연구소(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2) KT경제경영연구소(2013), "반려동물과 ICT의 만남".

대상으로 각종 보장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손해율 관리 어려움으로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일부 소비자와 동물병원 등의 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과거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활발히 출시한 바 있으나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철수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반려동물보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나의 보험으로 유사한 외모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연령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함.
- 동물병원 또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과도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의료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동물 관리의 체계화가 진전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자 인식이 성숙되면서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거 반려동물보험 시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향후에는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14년 1월, 개를 소유한 사람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개의 체내에 삽입 후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고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해당 시·군·구청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반려동물 관리의 체계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하고 3만 달러 이후부터 반려동물의 인격화가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
- 애완동물 관련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관리체계의 선진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성숙 등은 반려동물보험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하고 손해율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련 보험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임.

3) KB금융지주(2015), "국내외 반려동물보험 동향과 시사점".

4) 농협경제연구소(2013),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회사만이 취급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함.

-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애견의료보험은 반려견의 질병·상해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롯데손해보험의 반려동물보험은 개와 고양이의 가입이 가능하고 수술, 입원, 통원 치료비를 보장하며, 수술 1회당 150만 원, 입원 1일당 10만 원 등의 치료비 한도와 수술 2회, 입원 22일의 치료횟수 한도를 두고 있음.
- 2014년 이들 보험의 판매건수는 각각 879건, 762건⁵⁾으로 반려동물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임.

■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발달된 영국에서 판매되는 알리안츠의 반려동물보험 보장내용⁶⁾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질병·상해 담보뿐만 아니라 도난, 실종에 대한 보상, 제3자 손해배상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

- 동 보험은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비용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침술(acupuncture), 동종요법(homeotherapy), 허브요법(herbal medicine) 등 대체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함.
- 또한 반려동물을 도난당하거나 반려동물이 실종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배포하고 반려동물을 되찾아 주는 사람에게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광고비와 포상금에 대한 보상도 제공함.
-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재물 또는 인적 손실에 대해 제3자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며 이는 반려동물이 개일 경우에 한정됨.

■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며, 이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집을 떠나 있는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이에 대한 보장 니즈가 크기 때문임.

-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반려동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비용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여행 중 치료를 위해 돌아와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함.

5) 아시아경제(2015), "애견인 1,000만...펫보험은 '애개개'".

6) Petplan(<http://www.petplan.co.uk>).

- 만약 여행 중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를 당하여 집으로 돌아오기 어렵거나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추가적인 운송비용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상하며, 여행 중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시신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함.
- 반려동물과 여행 중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마이크로칩 이상, 예방접종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여행서류 분실 등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귀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상함.

■ 보험회사는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손해율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과거 높은 손해율로 판매가 중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상품공급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나,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이 일반화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제공의 범위 및 가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동물병원, 애견샵, 애견 동호회 등과 같은 판매채널 확보에 노력하고, 동물병원 등과의 제휴를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임.

■ 한편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한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여 단순히 질병·상해 보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신상품 개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로 1~2인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점을 감안하여 반려동물보험과 연계한 1~2인 가구의 보험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독거노인 사망 시 반려동물의 관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향후 반려동물의 기대수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고령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 니즈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반려동물에 특화된 보험상품의 개발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질병·상해 등 기본적인 담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배상책임, 여행관련 보장 등 담보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통계의 집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kiri